

■ 추석 가정 예배 ■

<가급적 추석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가족 중 믿음의 연장자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예배로의 초대 인도자

추석을 맞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시 30:11,12 다 함께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찬 송 590. 논밭에 오곡백과 다 함께

교 독 106. 감사절(1) 다 함께

기 도 가족 중

성 경 봉 독 딤페전 1:12-14 인도자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망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말 씀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님 가족 중

찬 송 559.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다 함께

주님의 기도 다 함께

<함께 나눌 말씀>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님”

중추절 아침에 함께 모여, 좋으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께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글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회망하고 박해했던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못한 존재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자비롭게 대하시고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나아가 그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고, 믿음과 사랑을 누리며 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주님의 인정을 받는 사도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는 중요한 사역을 맡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극적인 변화와 주님의 인정하심은 그의 이방인 사역에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대개의 유대인은 이방 사람들을 무척 무시했습니다. 그들과 한 식탁에 함께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죄인의 괴수’ 같았던 자신을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가 만난 이방인이 어떤 모습이나 처지이든 간에 모두 받아들여려는 태도를 보여 줍니다.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며,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라고, 그는 말씀합니다.

주님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받아들여 주셨고, 믿음과 사랑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생각이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살아가는 모양새가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마주하고 소중한 생명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넉넉하고 푸근한 품으로 서로를 대하고 격려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 기댈만한 푸른 언덕, 청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망자인 자신을 받아들여서, 대담하게도 사도라는 이름값까지 맡기시고, 그에 걸맞은 능력까지 부어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기대와 위임을 원하십니다. 바울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을 향한 포용과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삭막한 세상에 쾌청한 바람을 불어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족을 받아들임의 복음으로 초대하신 주님께 바울처럼 감사드리는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